

# 남광주야시장, 개장 3년만에 존폐 기로

### 하루 방문객 1만명→수십명...매출 감소에 참여 상인 줄어 운영비 충당도 못해 휴장...동구 "상인회 의지 없으면 중단"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이하 남광주야시장)이 개장 3년 만에 매출 저조 등을 이유로 존폐 기로에 섰다.

광주시 동구와 시장 상인회는 잠정 휴장을 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최악의 경우 폐장까지도 검토되고 있다.

23일 광주시 동구와 남광주야시장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운영 효율성 확보를 이유로 지난달 31일부터 남광주야시장 운영이 중단됐다.

2016년 11월 공식 개장한 남광주야시장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30분~밤 11시 30분)은 첫 개장 때 매대상인 30팀, 푸드트럭 10대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매대상인 8팀, 푸드트럭 2대 등 4분의 1 수준으로 줄

어든 상황이다. 이는 입점상인들이 방문객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방문객은 개장 초기 1일 1만여명에서 지난해에는 1일 1000여 명으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는 수십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소하는 방문객도 문제지만, 야시장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은 다른 아닌 금·토요일 2일 기준 100여만원에 이르는 운영비다.

야시장을 열 때마다 전기세, 청소비 등을 고려하면 2일 기준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 매대 상인들의 참여비 (1일 2만원)로 충당했으나 올해 들어 상인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운영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구와 남광주야시장상인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금요일 야시장 운영을 중단하는 조강수를 뒀지만, 결국 3개월여 만에 전면 휴장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남광주야시장 안팎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남광주야시장은 개장 초기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남광주야시장은 전국 명물시장으로 자리잡은 '대인예술야시장'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지만, 지원방식 등이 달라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대인예술야시장은 연간 국·시비 5억원을 지원 받고 있지만, 남광주야시장은 예산 10억원을 지원받아 화장실 개선과 아케이드 설치 등 기반 조성비로 모두 사용했다. 이후 관할 동구청에서 800만원을 지원해준 게 전부다.

협소한 기반 시설과 그야말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뻔한 메뉴' 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방문객 사이에서는 매번 판매되는 음식이 똑같고 좁은 통로, 부족한 간이 테이블 등 불편한 구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광주 동구청은 향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남광주야시장이 발전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아직 야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조규범 광주시 동구 일자리경제과장은 "내년부터 상인들이 의지를 보이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야시장 사업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생력과 기획력 없이 관주도로 행사를 추진한 결과라며 지금까지도 상인이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교육청 감사 반발해 내건 고려고 현수막 "내달 4일까지 철거 안하면 과태료 부과"

### 북구청, 학교에 공문 전달

광주시 북구는 "고려고측에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반발해 내건 현수막을 다음달 4일까지 철거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주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가 지난달 17일부터 학교 체육관 외벽과 인도 현수막 게시대 등에 내건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광주시 북구에 신고를 했다.

시민모임측은 "고려고가 광주시교육

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해 학교내·외부에 현수막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측은 또 "고려고가 교내·외부에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며,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법률과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설령 고려고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허가 배제대상이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을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고 현수막은 즉시 철거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여동생 폭행 육군 중위, 출동 경찰도 폭행

### 광주서부경찰, 헌병대 인계

광주서부경찰은 23일 "경찰관을 폭행한 육군 장교 A(26)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여동생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무지구대 소속 B(54)경위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A씨는 지구대에

경찰조사결과 육군 중위인 A씨는 교육을 받기위해 광주를 찾았으며, 여동생과 서로 만취상태에서 언쟁을 벌이다 여동생을 폭행했다.

이후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과 여동생을 분리 조치하자 B경위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헌병법으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서 기자 mskim@kwangju.co.kr

# 공군 하사관 부대 이탈...군경 수색 나서

### 3일째 행방 묘연

공군 38 전투비행전대 하사관이 부대를 이탈한 뒤 소식이 끊겨 군경이 수색에 나섰다.

23일 공군 38전대 등에 따르면 군수대대 소속 A하사가 지난 20일 부대를 나간 뒤,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귀대하지 않았다.

A하사는 비무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8전대는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영내 등을 수색하고 군산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38전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A하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원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서울 소재 대학생이 광주서 '대통령 탄핵' 낙서



○...서울의 모 대학교 재학생이 광주를 방문해 아파트 공사현장 벽면에 '문재인 탄핵'이라고 낙서를 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서행.

○...2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대학생 A(21)씨는 지난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국아텔리움 2차아파트 신축 공사장 철재 출입문과 공사장 가림막 등 2곳에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문재

인 탄핵'이라고 썼다는 것.

○...공사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스스로 차를 몰고 서울에서 광주를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광주가 맹목적으로 민주당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불만표시와 최근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해 타 지역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등을 알리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고 진술.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후진 차량 고의로 '쿵'...억대 보험금 쟁쟁

###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사고 5명 구속·28명 불구속 입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서 억대 보험금을 쟁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5)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B(25)씨 등 2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는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고서 수리비 명목으로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29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한 접촉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이들의 보험금 수령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피의자 중 일부는 전복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병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교도소 동기와 지인 등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태풍에 쓰러진 나무 정비  
나무의 가치를 제거하고 있다.

23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주택단지에서 북구청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제17호 태풍 '타파'에 쓰러진 나무의 가치를 제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고가 자전거 상습 절도 3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은 23일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김모(36)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 동산아파트 내 자전거 거차대에서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지난 20일까지 광주시 북구와 서구의 상가, 아파트 등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52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건설노동자인 김씨는 건

설 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자전거를 훔쳐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산악·경주용 자전거가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몰래 훔친 뒤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공구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의 상습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